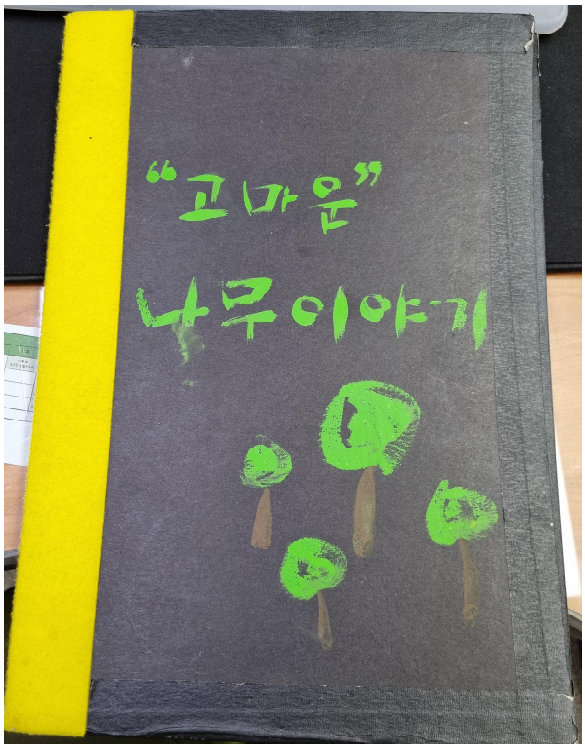
‘고마운’ 나무 이야기

개발자	김희수(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_응용
지리산국립공원의 우거진 숲 속에 나무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 곤충의 모습을 살펴보며 숲의 균형과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느낄 수 있다.	
활용대상	유아
활용시기	사계절
준비물	‘고마운’나무 이야기 교보재, 돗자리
소요시간	20분
제작비용	10,000원



	
(교보재 사진_1 교보재 내용)	(교보재 사진_2 교보재 내용)

운영방법

1. 프로그램 도입부에 이용하며, 숲학교 참나무 6형제 강좌에서 운영 중 이다.
2. 프로그램 운영 장소(치유탐방로, 상생의 길)에 자생하는 주변 나무를 참여자와 함께 살펴본다.
3. 커다란 나무 하나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지 살펴본다.
   - 다람쥐, 오목눈이 오색딱따구리, 벌,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 동물, 곤충의 활동모습을 관찰하며 생태를 이해한다.
4. 숲에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곳곳에 다양한 동식물이 더불어 살고 있음을 알리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에 관해 느낌을 나눈다.

향후방향

미취학아동(7세)를 대상으로 도입부에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책교보재로 추후 참여대상의 연령범위를 넓히기 위해 교보재 구성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실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보재는 맞지만 외부 자연해설프로그램 진행시 휴대성이 낮아 크기를 축소한 교보재를 추가 제작하여 휴대성을 높이겠다.

참고내용

- 시각적으로 관찰되는 숲의 모습 이외에 청각적으로 들리는 숲의 모습도 함께 관찰하며 숲을 더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주의사항

- 프로그램 주변 환경을 살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